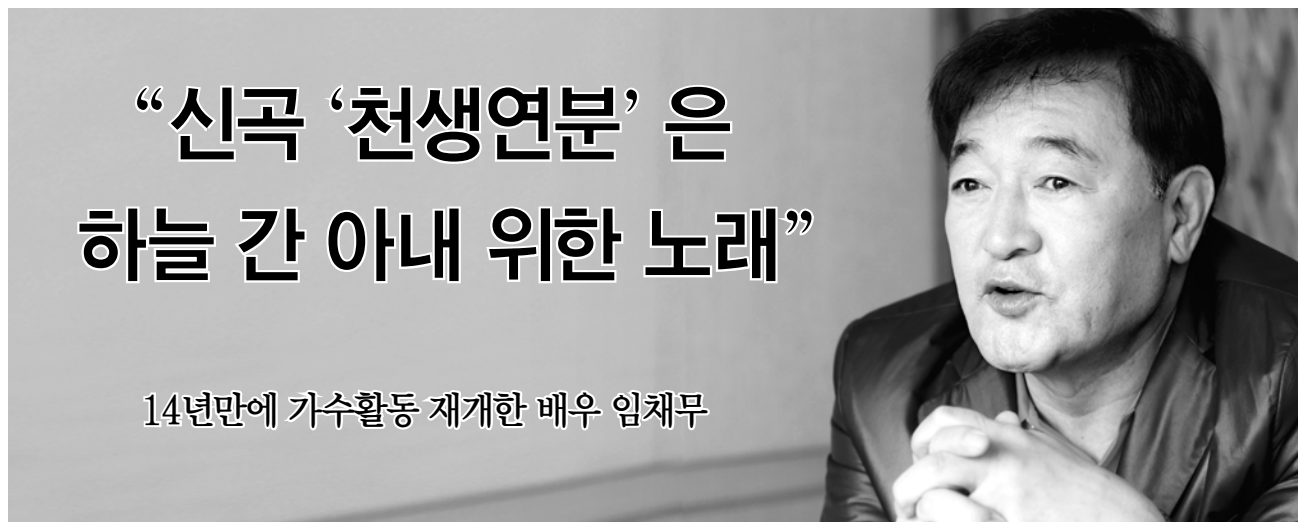


TV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신곡 ‘천생연분’은 하늘 간 아내 위한 노래”

14년만에 가수활동 재개한 배우 임채무

“아내와 나는 천생연분이었어요. 소개로 만난 지 두 달 만에 결혼해서 37년을 해로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곡 이름이 ‘보고 또 보고’였는데 제가 ‘천생연분’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배우 임채무(66·사진)가 14년 만에 신곡을 내고 가수 활동을 재개한다. 그는 지난 18일 싱글 ‘천생연분’을 발표하고 동반간 가수 활동에 매진하기로 했다. 오승근이 불러 히트한 ‘내 나이가 어때서’의 작곡가 정기수가 노랫말과 곡을 쓴 ‘천생연분’은 경쾌한 리듬과 탭포의 곡에 사랑하는 이에 대한 절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다.

임채무는 아들, 딸을 낳고 37년을 함께 한 부인(성우 박인숙)을 지난 6월 여의었다. “천생연분”은 아내를 향해 하늘로 부치는 눈물의 사모곡이었다.

최근 여의도에서 만난 임채무는 “다시 노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곡을 받았는데 그중 ‘천생연분’이 딱 눈에 들어왔다. 평소 내 18편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일 정도로 아내의 내게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천생연분’이 내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 천생연분 아내와 사별한 고통 노래로 달래=젊은층에게 임채무는 ‘하늘이시여’나 ‘웃어라 동해아’, ‘암구정백야’의 아버지로 기억되는 배우지만, 임채무는 중저음의 목소리가 일품인 노래 실력 뛰어난 가수이기도 하다.

그는 임채무라는 이름 석자를 세상에 널리 알린 MBC 드라마 ‘사랑과 진실’(1984~1985)에 출연하던 중 그의 목소리를 알아본 제작진이 드라마 주제를 불러보고 제안하면서 동명의 주제를 불렀다가 연기와 노래로 ‘쌍끌이 대박’을 쳤다.

“제가 1978년 결혼할 때 통장에 달랑 3만원 들어있었어요. 직장 다니던 동생한테 20만원 빌려서 4명짜리 전세방을 얻어 신집살림을 차렸죠. 그런데 ‘사랑과 진실’이 히트 치니까 광고, 행사 등을 통해 기절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당시 ‘사랑과 진실’ 음반이 50만여 장 팔렸으니 엄청난 히트였죠.”

이후 그는 주현미와 ‘인천항 갈매기야’를 듀엣으로 부르고, 가요 매달리 ‘쌍쌍 데이트’, ‘카페연가’ 등을 내며 가수로서 전곡을 돌며 활동했다. 마지막 음반은 2001년 ‘아침에 당신’, 신곡 5곡을 비롯해 리메이크곡까지 합치면 지금껏 총 13곡을 발표했다.

“노래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은 꽤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러다 아내가 2011년 11월 담근암 판정을 받으면서 울스토퍼였죠. 아내가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의사들이 못 고치면 내가 고쳐야겠다고 결심하고 백방으로 뛰어나다며 좋다는 약과 치료법을 구해왔어요.”

그의 지극정성으로 부인 박씨는 3개월이 아닌, 4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중요한 건 병원에서 투병하다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와 아들, 딸을 제외하고 내 형제들도 아내가 아픈 것을 몰랐어요. 그만큼 겉으로 멀정했어요. 나랑 놀러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내의 부고를 접한 후에야

투병 사실을 알았어요. 머리카락도 하나도 안 빠졌죠. 제가 해외 4개국을 돌아다니며 좋다는 약을 다 구해왔고, 철저하게 식이요법을 지켰어요. 의사들이 기적이라며 놀랐죠.”

임채무는 “그러나 다 무슨 소용이었나. 결국 아내가 떠났는데,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통곡을 몇차례나 했다”고 말했다.

◇ 아버지에서 할아버지 역으로 밀려나는 상실감도 노래로 극복=예초 그가 노래를 다시 부르기로 결심한 데는 연기자로 서 이제 아버지 역에서 할아버지 역으로 밀려나야하는 단계에 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멜로 주인공을 하던 배우는 어느 순간 아버지 역을 맡아 조연으로 밀려날 때 첫 번째 상실감이 와요. 과거 밀려나면서 공백기가 2~3년 왔는데 상실감이 크더라고요. 어느새 더 나이가 들어 이제는 아버지에서 할아버지로 밀려날 때가 온 거예요. 아버지 역은 이제 저보다 어린 후배들이 맡게 되고, 그렇다고 할아버지 역을 맡기에는 아직 젊어서 또다시 공백기가 2~3년 오겠구나 싶자, 가만히 있으면 잊혀지니 노래를 부르며 상실감을 달래자고 생각했죠.”

그는 “노래를 불러 히트시키겠다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천생연분’은 내가 돈을 대서 제작했다. 한살이라도 젊을 때 내 목소리를 남겨두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두기엔 아깝다고 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하기로 했다.

“가만히 있으면 못 견딜 것 같은데 주변에서 노래가 좋다고 하니 행사, 방송 활동 등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로서는 좋아하는 노래를 실컷 부르고, 사람 만나서 거 좋아하니 바쁘게 돌아다니며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어 여러가지로 좋았죠. 준 히트 이상만 되면 아무 생각없이 1~2년 지방 행사를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 해병대 출신 소년난 주당...“하룻밤에 양주 39병도”=임채무는 해병 전우다. MBC TV ‘진짜사나이’가 지난달부터 방송한 해병대 특집에서 1~7회 내레이션을 맡아 젊은 층도 그가 귀신잡는 해병대 출신임을 알게 됐다.

“원래 1회만 하기로 했는데 방송 나가고 난리가 났다며 제작진이 계속 해달라고 해서 7회까지 내레이션을 했어요. 우리 때에 비해만 귀족 군대지만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애쓰는 모습이 반갑더라고요.”

그는 “해병대 정신으로 지금껏 살아왔다. 평생 규칙과 규율, 위계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서 “뒀을 맡겨도 괴를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좋게 봐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채무는 연예계 소문난 주당이기도 하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술로 나를 이겨낸 사람은 못봤다”고 자신하며 “지금도 매일 술을 마신다”고 말했다.

그는 “탈트렌드를 할 수 있는 외모와 노래 실력, 술을 마셔도 끄떡없는 체력 등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왔다”면서 “큰 술을 권했지만 이 역시도 노래로 달랠 수 있게됐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EBS 1

Table listing EBS 1 programs: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부모-생활보급, 14:0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etc.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00:00 올림포스 <국어-일제개념>, 13:05 수능특강light <영어-독해>, etc.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07:00 물류관리사 시험대비 강좌, 15:4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8일(음 11월 18일 戊寅)

Table of daily horoscopes: 48년생 반복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60년생 예기치 못한 국량이 조성될 수 있으니 운로를 참고한 후에 진퇴를 결정해야겠다, etc.

송해, 63년만의 결혼식 “곱던 얼굴 어디가고”

KBS ‘나를 돌아봐’ 시청자 눈물 ‘핑펩’

구순을 앞둔 새신랑의 뜨거운 눈물이 성탄절 밤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지난 25일 밤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나를 돌아봐’가 ‘국민 MC’ 송해(88) 결혼식 덕분에 금요일 밤 시청률 1위라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날 방송에서는 송해가 아내 석옥이(82) 여사와 결혼 63년 만에 식을 올리는 모습이 등장했다. 송해는 “당시 연교가 있고 부모님, 친척이 있어야 식을 올릴텐데 (실황인인) 나는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라고 털어놓았다.

웨딩드레스 차림의 아내를 맞이한 송해는 직접 낭독한 편지에서 “혈연단신 고향을 떠나온 나에게 옥이 당신은 삶의 의지를 주려고 태어난 여자 같다”면서 “그런데 나는 정말로 일에만 미쳐서 남편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송해는 대학생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던 아픔을 언급하면서 “다 키운 자식을 잃은 뒤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고 벽을 향해 한없이 우는 당신에게 ‘여보, 그만하오’ 하고 달려야 할 내가 시끄럽다고 소리 지른 것을 너무 후회한다”라고 말했다.

편지를 낭독하던 끝에 “곱던 얼굴 그새 다 어디 가고 이쑤이 됐다”라면서 오열하는 송해의 모습에 결혼식 참석자들뿐 아니라 시청자들도 눈물을 흘렸다.

송해는 “하지만 여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당신 얼굴은 천사 같다”라면서 “그전보다 더 예쁘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이날 결혼식은 ‘나를 돌아봐’에 함께 출연 중인 가수 조영남, 배우 김수미, 방송인 이경규, 박명수, 아나운서 조우중 등의 도움으로 성사됐다. 연합뉴스 조우중 등의 도움으로 성사됐다.

